커튼(curtain)

(막13:14-27)

14.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5.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16.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7.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18.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19.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0.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21. 그 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23.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4. ○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6.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7. 또 그 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커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집에 다들 커튼을 달고 계시지요?

천으로 된 커튼이 아니더라도 요즘 버티칼이다 블라인드다 해 가지고 커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커튼을 달면서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 것은 무늬라든지, 또는 버티칼로 할 것이냐 블라인드로 할 것이냐 천으로 할 것이냐, 이런 종류나, 또 겨울이면 따뜻하게 한기를 막아줄 수 있을 만한 것으로는 어떤 것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커튼의 가장 우선적인 기능은 가리는 데에 있습니다.
커튼 안쪽에 있는 사람들을 바깥에 대해서 가리든지, 아니면 연극무대의 휘장도 가리는 것입니다.
가리고 있는 동안에 그 안에서 무대세팅도 하고 준비도 하고, 가리는 데에 커튼의 주된 기능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24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종말에 재림하실 때의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지구,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산과 들, 하늘, 가정.
이 세상과 해와 달과 별 전체가 다 커튼입니다.
그러면 이 커튼은 누가 만든 누구를 가리기 위한 커튼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커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가 다 커튼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커튼은 누구에게서 누구를 가리는 것이냐?
사람에게서 하나님과 하나님 계신 천국을 가리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해와 달과 별, 지구로 이루어져 있는 이 우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무와 들판이 있고 산과 구름이 있는 이 세상이고, 이것이 커튼입니다.
하나님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셔서 커튼으로 사용하시면서 당신과 당신이 계신 천국을 가리고 계실까?
왜 가리고 계실까요?

인간을 인격자로 만드셨습니다.
인격자로 만드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반려자로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려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사랑을 증명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커튼으로 가려버린 겁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커튼에 가려져서 감추어 있지 않고 커튼이 없는 채로 하나님과 천국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되 이 세상에 에덴을 창설하셔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예 보좌 앞에다가 인간을 만드셨다면 보좌에 앉아계신 빛이신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성령님을 통해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 천국을 기뻐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좋다고 하는 것, 어떤 것을 준들 보좌를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 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커튼으로 가리신 겁니다.
가린 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커튼을 투시해서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커튼을 투시해서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커튼이 가려진 채로 커튼 밖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만 합니다.
그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커튼에 가려져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커튼이에요, 가정도 가족도 커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커튼을 투시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 커튼이 젖혀지는 거예요.
커튼이 젖혀지면서 커튼이 가려져 있는 동안에 커튼을 투시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선택받은 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고, 커튼이 젖혀져서 '어! 예수님이 진짜 천국에 계셨고 저 천국이 우리가 갔어야만 할 곳이고, 그곳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구나!' 하며 그때 보고 그때 깨닫는

사람들은 이미 늦은 거라는 겁니다.
커튼이 젖혀지기 전에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승천하신 주님을 봤어야 되는데, 재림 때는 커튼이 젖혀져버리고 말아서 그때 하늘나라가 보이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게 되면 그때 보는 것은 무효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커튼들을 투시할까요?
생텍쥐페리라고 잘 아시죠?
'어린왕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을 감아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본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누가 했는지 모르는 격언 같은 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은 눈을 크게 뜨고 보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눈을 감아야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우리 오래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늘 내 눈앞에 계시면서 청소하시고 밥하십니다.
그때는 안 보여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일 때문에 외가에 가셨습니다.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때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텍쥐페리가 말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을 감아야 보인다.'

육체적인 눈의 시야에서 사라져야 마음으로 비로소 보게 됩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들은 눈을 크게 뜨고 보지만, 사랑하는 것들은 눈을 감고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바로 커튼을 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족을 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되는데, 가족이 좋은 것이에요, 가족이 사랑할 만한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할 만하고 좋은 가족에 대해 눈을 감는 것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눈

을 감을 때, 하나님사랑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쓰레기통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보겠다는 것은 하나님사랑이 아니죠.
볼 만한 것, 좋은 것, 사랑스러운 것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세상이란 커튼을 쳐버리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피하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다가 내려와서 집안으로 들어가 집기 하나라도 들고 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급격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신 모습을 연상하려면 성전정화 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채찍을 들고 분노하시면서 상을 뒤집어엎고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쫓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렇게 과격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더블 분노가 발생합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 그것 자체로도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인데, 그것이 서서는 안 될 곳에 서는 분노를 가중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의 얘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멸망의 가증한 것은 멸망을 야기 시키는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멸망이 뭡니까?
커튼인 이 세상에서 커튼 바깥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이 커튼 안쪽의 세계에서 눈을 크게 뜨고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다니엘서의 예언에서 나오는 대로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수리아 지역의 왕이었던 이 헬라주의자 왕이 성전을 점령해서 성전에서 번제단을 없애버리고 번제단이 있는 자리에 제우스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건을 다니엘이 예언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번제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마음으로 이 세상을 크게 보고 살았습니다.
'내가 5년 뒤에는 좋은 집을 사야지, 10년 뒤에 내 아들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키워야지!' 온갖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이 세상을 보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커튼 밖의 세계인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여요.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양 한 마리를 잡아다 죽이고 태우면서 '이 세상을 크게 보고 살았던, 세상에 의해서 내 마음이 침투되고 살았던 상태가 저 양이 되어서, 양이 죽을 때 내가 같이 죽는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이 치워지고 제우스신상이 들어섰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라는 게 뭡니까?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어, 프로메테우스가 하늘에서 불을 훔쳐가지고 왔다, 불을 사용하니까 참 대단한 것이에요, 불이라는 게.
그 대단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하늘에 속한 신들에게 속한 것인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신화라는 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요.
자기 자신의 삶을 이해하기 위하여 신이라는 걸 만들어낸 것이 신화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상적인 자아상을 창조해 낸 것이 제우스신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과는 정 반대에 서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안에 마음의 모든 관심을 다 집중시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에요.
번제단을 치워버렸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도록 하는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게 만들어버렸다는 얘깁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비전을 가져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교회부흥에 대한 꿈을 가져라!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
이것이 비전이든 희망이든 꿈이든,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든 목사님의 비전이든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하건 무엇이든지 간에 전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마음의 눈을 크게 뜨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멸망의 가증한 것들인데, 이것들이 이제는 번제단의 의미가 십자가를 통하여 선포되어야 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얘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그것 자체로도 가증한 것이고 멸망 받아야 할 것인데, 그것이 교회 안에,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번제의 의미가 선포되어야 될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커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세요!'라고 말해야 될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희망과 꿈이 크니까 이 세상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세요!' 하고 제우스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는, 다시 말해서, 나의 모습이 제우스신처럼 멋진 모습이 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열심히 뛰라고 말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중의 분노를 살 일들이 선민의 서클 안에서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텍쥐페리의 말을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을 감아야 보인다, 이 세상에서 커튼에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의 문제를 크게 마음으로 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의 문제를 크게 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업이 커튼이에요, 그 자식이 커튼이에요.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5년 뒤, 10년 뒤의 미래를 보고 꿈꾸고 있는 동안, 그것을 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비전이 커튼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내 자식의 미래가 얼마나 귀중하고 내 배우자 가정과 직장 문제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나 그 귀중한 것에 대해서 눈을 감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안 보인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육체의 오감으로 접하게 되는 이 세상이라는 커튼에 대해서 차단해 버리면, 이 세상이라는 커튼을 눈을 감고 안 보게 되면, 커튼 너머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이 세상, 너무 좋고 사랑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좋은 걸 좋은 것으로 인정합시다.
사랑스러운 걸 사랑스러운 것으로 인정합시다.
사랑스럽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게 하나님사랑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고 추하고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쓰레기통에 대해서 눈을 감고 외면해버렸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눈을 감게 해줍니다.
내 마음에 내 사업문제가 크게 보이고, 걱정이 되고, 아니면 사업이 잘돼서 기쁠 때, 이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업에 대해 마음의 눈을 감아버립니다.
지금 현재 내게 가장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을 때 그 사업이라는 커튼 뒤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 심방 가면서 걱정하고 가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열에 두세 번 정도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업 때문에 바빠서 사업만 크게 보느라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사업 쫄딱 망하고 사업이 없어지니까 사업에 썼던 그 마음에서 사업이 사라지자마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업이 망하기 전에 사업에 대해 눈을 감자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지기 전에 자식에 대해 눈을 감자는 겁니다.
나 자신의 미래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미래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자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잘될 수 있다, 잘될 수 있다, 이 세상에 대해 눈을 크게 뜨

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더블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자, 오늘 하루 살면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것, 좋은 느낌으로든 걱정스러운 느낌으로든 불안감을 주고 공포감을 주는 것이든, 모든 이 세상 전체의 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는 방법은 내 마음에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생각날 때마다 좋아질 때마다 싫어질 때마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 커튼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로 세상 커튼에 대해 눈을 감고, 커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아버지와 아버지 계신 천국을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로 내 마음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세상 것들에 대하여 눈 감게 해주시므로 세상이라는 이 커튼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과 그 천국을 마음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